

2027
고2 문학
지학사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2)(2) 엃박자 D 기출 서술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이 단원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상 특징과 ‘합창’, ‘음치’, ‘립싱크’ 등 주요 소재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또한 확실성을 강요하는 ‘음악 선생’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추구하는 ‘엃박자 D’의 대립된 관점을 비교하고, 결말부에서 ‘나’와 친구들이 보여 준 ‘립싱크’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유형이 자주 다뤄집니다. 따라서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편견을 비판하고 다양성의 공존을 역설하는 작가의 주제 의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공연 기획자인 ‘나’는 공연 디비디(DVD)를 제작하다 고등학교 때 함께 합창단 활동을 했던 동창인 엃박자 D를 관객들 사이에서 발견하고, 고등학교 합창단 시절을 떠올린다.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즈음 가장 인기 있던 발라드 곡을 추천했(다기보다 그냥 제목을 댔)고, 모두들 찬성했다.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 단순한 멜로디였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데 여러 명이 뛰어들어야 하니 싫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연습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였다.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자, 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 하자.”

㉠ 음악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 엃박자 D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놀랄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

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다섯 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 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에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 봐.”

음악 선생은 세 줄로 서 있던 22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들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단장, 이게 네 목소리 아냐?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 봐.”

엃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엃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이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음악 선생은 엃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벙긋 벙긋하는 거야. 알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엃박자 D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이 했던 말과 엃박자 D의 반응과 친구들의 속삭임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름만은 도

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 엿박자 D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그의 이름이 혀끝에 오르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D라는 문자는 그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왔다. D라는 것이 그의 이름이니셜인지, 아니면 그가 D음만을 고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D라는 문자를 보고 있으면 곧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감지되고, 언제나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다. 어찌됐건 우리는 엿박자 D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 재미있는 추억거리였고, ‘엿박자 디’라고 발음할 때의 이상한 쾌감도 좋았다. 그의 이름이 거론되면 대개 첫 연습 때 그가 보여 준 놀라운 엿박에 대한 감탄이 이야기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엿박자 D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공연 디브이디가 발매되고 2주일이 지나서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고등학교 축제 때 엿박자 D는 ㉠ **립싱크만** 하라는 음악 선생의 지시를 듣지 않고 노래를 불러 공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음악 선생에게 크게 혼난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음악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영화를 전공하게 되지만, 「소리의 전 사회」라는 무성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대학원에서 음치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가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에게 찾아와 자신의 공연 기획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다가 평소에 관심을 두었던 그룹 ‘더블 더빙’을 엿박자 D가 섭외했다는 말을 듣는다. 더블 더빙과 함께 공연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나’는 엿박자 D의 부탁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엿박자 D의 요청으로 오랜만에 합창단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공연에 초대한다. 공연은 시작 전부터 반응이 좋아 매진이 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 영화의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 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한다. 참아 보지만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 영화를 보며 한 번 웃고, 더

블 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질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엿박자였다. 관객들은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더블 더빙이 엿박자 D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엿박자 D를 위한 엿박자 연주곡.’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양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양코르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 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 봐.”

무선 헤드셋으로 엿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 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엿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엿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가까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 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 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엃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벌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다.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음치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벌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그저 입만 벌긋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엃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김중혁, 「엃박자 D」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배제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과거의 체험을 회상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감상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인물들의 성격을 직접 논평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등학교 시절 합창곡은 합창단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예술성이 높은 곡으로 선정했다.
- ② 음악 선생은 엃박자 D에게 합창단에서 나갈 것을 권유했으나 엃박자 D는 이를 거절했다.
- ③ ‘나’는 ‘더블 더빙’과 함께 공연할 기회를 얻기 위해 엃박자 D의 제안을 수락했다.
- ④ 엃박자 D가 기획한 앙코르 공연에서는 반주 없이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 ⑤ 현재의 공연장에서 ‘나’와 친구들은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소리는 내지 않았다.

3. ㉠과 ㉡가 생각하는 ‘합창’에 대한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개별 목소리의 개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 지휘자의 통솔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 ② ㉠: 튀는 목소리는 제거하여 획일적인 소리를 내야 한다.
㉡: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③ ㉠: 연습보다는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다.
㉡: 노력하면 누구나 훌륭한 합창단원이 될 수 있다.
- ④ ㉠: 음악적 기교보다는 참여하는 즐거움이 우선이다.
㉡: 완벽한 화음을 위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
- ⑤ ㉠: 합창은 관객을 위한 서비스여야 한다.
㉡: 합창은 부르는 사람 자신의 만족이 중요하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합창’은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음정과 박자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획일성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반면 ‘엇박자 D’는 이러한 획일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남들과 다른 개성을 지닌 존재이다. 작가는 음치들의 노래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 ① 음악 선생이 엇박자 D에게 ‘입만 병긱병긱’이라고 지시한 것은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고등학교 시절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불길한 기운’이 감지된 것은 획일적인 합창의 질서가 깨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더블 더빙’과 영상의 엇박자를 보며 관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은, ‘다름’이 불협화음이 아니라 새로운 미적 가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④ 어둠 속에서 들려온 음치들의 노래가 ‘화음’처럼 들린 것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엇박자 D가 20년 전 노래를 앙코르곡으로 선택한 것은, 과거에 합창을 망쳤던 자신을 용서해준 친구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의도이다.

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발적인 배려이고, ㉡는 타의에 의한 굴복이다.
- ② ㉠은 소외와 억압을 상징하고, ㉡는 공감과 존중을 의미한다.
- ③ ㉠은 합창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이고, ㉡는 공연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 ④ ㉠은 엇박자 D의 음악적 성장을 돕는 계기이고, ㉡는 ‘나’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하는 계기이다.
- ⑤ ㉠과 ㉡는 모두 자신의 실력을 감추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6. 윗글을 감상한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A: 제목인 ‘엇박자 D’는 주인공의 별명이기도 하지만, 획일적인 사회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아.
- ② 학생 B: 맞아.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노래보다 자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태도도 성적 지상주의라는 획일적인 가치관을 보여 주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
- ③ 학생 C: 더블 더빙의 연주와 무성 영화 장면이 묘하게 어긋나는 부분에서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린 건, ‘엇박자’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 주는 장치야.
- ④ 학생 D: 마지막에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나온 건 시각적인 편견을 차단하고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하게 해서, 음치들의 노래가 지닌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을 거야.
- ⑤ 학생 E: 엇박자 D가 고등학교 때 끝까지 노래를 부르겠다고 고집을 피운 건, 자신의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였어.

7. ‘엇박자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 단장을 맡을 정도로 활동에 열성적이었다.
- ② 음악 선생에게 혼이 난 사건을 계기로 음악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었다.
- ③ 대학원에서 음치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 ④ 공연 기획자인 ‘나’에게 자신의 공연에 대한 컨설팅을 부탁했다.
- ⑤ ‘나’에게 합창단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공연에 초대할 것을 요청했다.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공연 기획자인 ‘나’는 공연 디브 이디(DVD)를 제작하다 고등학교 때 함께 합창단 활동을 했던 동창인 엇박자 D를 관객들 사이에서 발견하고, 고등학교 합창단 시절을 떠올린다.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즈음 가장 인기 있던 발라드 곡을 추천했(다기보다 그냥 제목을 댔)고, 모두들 찬성했다.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 단순한 멜로디였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데 여러 명이 뛰어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연습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였다.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 “자, 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하자.”

음악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엇박자 D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다섯 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 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에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 봐.”

음악 선생은 세 줄로 서 있던 22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들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 나 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단장, 이게 네 목소리 아냐?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 봐.”

엇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엇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이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음악 선생은 엇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벌긁긁하는 거야. 알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엇박자 D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이 했던 말과 엇박자 D의 반응과 친구들의 속삭임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름만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 엇박자 D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그의 이름이 혀끝에 오르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D라는 문자는 그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왔다. D라는 것이 그의 이름이니셜인지, 아니면 그가 D음만을 고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이었던지 기억나지 않지만, D라는 문자를 보고 있으면 곧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감지되고, 언제나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다. 어찌됐건 우리는 엇박자 D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 재미있는 추억거리였고, ‘엇박자 디’라고 발음할 때의 이상한 쾌감도 좋았다. 그의 이름이 거론되면 대개 첫 연습 때 그가 보여 준 놀라운 엇박에 대한 감탄이 이야기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엇박자 D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공연 디브이디가 발매되고 2주일이 지나서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고등학교 축제 때 엇박자 D는 립싱크만 하라는 음악 선생의 지시를 듣지 않고 노래를 불러 공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음악 선생에게 크게 혼난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음악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영화를 전공하게 되지만, 「소리의 전시회」라는 무성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대학원에서 음치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도 한다. 그리고 ‘나’가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에게 찾아와 자신의 공연 기획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다가 평소에 관심을 두었던 그룹 ‘더블 더빙’을 엿박자 D가 섭외했다는 말을 듣는다. 더블 더빙과 함께 공연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나’는 엿박자 D의 부탁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엿박자 D의 요청으로 오랜만에 합창단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공연에 초대한다. 공연은 시작 전부터 반응이 좋아 매진이 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 영화의 장면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 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한다. 참아 보지만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 영화를 보며 한 번 웃고, 더블 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질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엿박자였다. 관객들은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더블 더빙이 엿박자 D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엿박자 D를 위한 엿박자 연주곡.’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앙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앙코르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 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 봐.”

무선 헤드셋으로 엿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 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엿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엿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 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 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엿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벌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다.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음치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벌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그저 입만 벌긋거렸다. 다른 친구들

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 우리는 그것이 엿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김중혁, 「엿박자 D」

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등학교 시절 ‘나’와 친구들은 합창 연습보다 자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 ② 음악 선생은 엿박자 D가 합창을 망친다고 판단하여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
- ③ ‘더블 더빙’의 연주는 무성 영화의 장면과 정확하게 박자가 맞아떨어져 웃음을 주었다.
- ④ 엿박자 D는 성인이 된 후 다큐멘터리를 기획하며 음치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졌다.
- ⑤ 20년 전 축제 때 불렀던 노래는 음악적 기교가 단순하고 부르기 쉬운 곡이었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합창 대회에 대한 열정보다는 입시 위주의 자습을 우선시하는 학교의 분위기와 음악 교사의 태도를 보여 준다.
- ② ㉡: 전체의 조화를 위해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고 배제하려는 폭력적인 획일성을 드러낸다.
- ③ ㉢: ‘틀림’으로 규정되었던 엿박자가 예술적 맥락 안에서 고유한 ‘다름’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④ ㉣: 엿박자 D가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몰래 준비한 계획임을 암시한다.
- ⑤ ㉣: 과거 엿박자 D의 립싱크를 방관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자, 엿박자 D가 보여 준 ‘다름’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 것이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소설은 ‘합창’이라는 소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성과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음치’로 상징되는 비주류적 존재들이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고유한 개성을 지닌 존재임을 역설한다. 특히 결말부의 공연은 완벽한 화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불완전한 목소리들이 어우러지는 과정 그 자체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성찰하게 한다.

- ① 음악 선생이 엿박자 D에게 립싱크를 강요한 것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노래가 ‘화음’처럼 들렸다는 것은,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조화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군.
- ③ D라는 문자에 대해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움’을 느꼈던 ‘나’의 과거 인식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④ 엿박자 D가 음치들의 목소리를 믹싱하여 공연에 올린 행위는 비주류적 존재들의 목소리를 복원하여 그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⑤ 관객들이 무성 영화의 반주에 맞춰 웃음을 터뜨린 것은, 엿박자 연주가 주는 불완전함을 조롱하며 완벽한 연주를 기대하는 심리가 표출된 것이겠군.

11. 윗글의 ‘음악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계발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조력자이다.
- ② 합창의 예술적 완성도보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교육자이다.
- ③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다.
- ④ 자신의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엿박자 D에게 사과하는 성찰적인 인물이다.
- ⑤ 학교의 방침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여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인물이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서술 방식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에서 서술자 ‘나’는 관찰의 주체이고, 주인공은 관찰의 대상이 된다. 이때 서술자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카메라 역할에 그치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작가는 이러한 서술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① ‘나’는 과거 회상을 통해 관찰 대상인 엿박자 D가 겪었던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나’는 엿박자 D의 내면을 직접 서술할 수 없으므로, 그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심리를 추측한다.
- ③ ‘나’는 엿박자 D의 공연을 관찰하며 ‘다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고정관념을 반성하고 있다.
- ④ ‘나’는 관찰 대상인 엿박자 D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그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한다.
- ⑤ 작가는 엿박자 D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 변화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가 서술자로 등장한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에서의 경험(과거)을 회상하고, 동시에 현재 시점에서 엿박자 D가 기획한 공연을 보며 느끼는 감동과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서술자의 인식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서술상 특징이다.

- ① 서술자 ‘나’의 내면 심리와 주관적인 감상(불길한 기운, 아름답다고 느낌 등)이 작품 전반에 드러나 있다.
- ③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다.
- ④ 서술자는 ‘나’로 고정되어 있으며 교체되지 않는다.
- ⑤ 인물 간의 대화가 제시되지만, 비극성을 고조시키기보다는 과거의 갈등 상황이나 현재의 기획 의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결말부는 비극이 아닌 화해와 감동의 분위기이다.

2. [정답] ①

고등학교 시절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으며, 누군가 당시 인기 있던 발라드곡을 추천하자 모두 찬성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나’는 그 노래가 단순한 멜로디였고 합창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고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숙고하여 예술성이 높은 곡을 선정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음악 선생은 엿박자 D가 합창을 망치자 자진 사퇴를 권했으나, 엿박자 D는 이미 광고를 해 두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 ③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으나 평소 관심을 두었던 그룹 ‘더블 더빙’을 엿박자 D가 섭외했다는 말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부탁을 받아들였다.
- ④ 앙코르 공연에서는 20년 전 불렀던 노래가 흘러나왔으며, 이는 반주 없이 22명의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된 것이었다.

⑤ 공연장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과 ‘나’는 입을 빙긋거리며 립싱크를 했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3. [정답] ②

음악 선생(㉑)은 엿박자 D의 목소리가 튀자 자진 사퇴를 권하고 립싱크를 지시하는 등, 전체의 통일된 소리를 위해 개별적인 ‘다름’을 제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엿박자 D(㉒)는 성인이 되어 기획한 공연에서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음정과 박자가 제각각인 노래를 통해 ‘틀림’이 아닌 ‘다름’이 모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① 음악 선생은 개성을 억압했고, 엿박자 D는 획일적인 통솔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했다.
- ③, ④, ⑤ 제시된 지문의 내용과 인물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특히 엿박자 D는 실력이 부족한 사람(음치)들을 모아 공연을 기획했으므로 배제를 주장하는 ④는 엿박자 D의 관점과 정반대이다.

4. [정답] ⑤

엿박자 D가 20년 전 노래를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버전으로 믹싱하여 들려준 것은, 과거 자신을 용서해 준 친구들에게 보답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확실성을 강요받아 상처 입었던 과거의 ‘음치(소수자)’들이 모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하고, 친구들에게 그 ‘다름’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친구들은 엿박자 D를 방관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용서해 준 친구들’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음악 선생은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여 엿박자 D의 소리를 소거하려 했으므로 억압적 태도에 해당한다.
- ② 엿박자 D의 노래로 인해 합창이 엉망이 되자 아이들이 불안해한 것은 전체주의적 규율이 깨지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③, ④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엿박자와 음치들의 노래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은 다양성과 다름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정답] ②

과거의 립싱크(㉑)는 음악 선생이 엿박자 D의 ‘다

름'을 용납하지 않고 강제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것으로, 폭력적인 억압과 소외를 상징한다. 반면 현재의 립싱크(㉣)는 '나'와 친구들이 음치들의 노래를 들으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엇박자 D가 기획한 무대의 주인공인 음치들의 목소리를 존중해 주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행위이므로 공감과 존중, 그리고 속죄의 의미를 지닌다.

- ① ㉡는 타의(명령), ㉣는 자발적 행동이다.
- ③ ㉣는 공연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는 행위이다.
- ④ ㉡로 인해 엇박자 D는 음악과 결별했으므로 성장을 돕는 계기로 보기 어렵다.
- ⑤ ㉣는 실력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다.

6. [정답] ⑤

고등학교 시절 엇박자 D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노래를 부르려 했던 이유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또한 작품의 맥락상 그는 자신이 음치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합창단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려 했던 것이지 실력을 뽐내려던 것은 아니다. 앞부분 줄거리에서도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로 묘사된다.

- ① '엇박자 D'는 사회적 평균이나 기준에서 벗어난 인물을 상징한다.
- ② 학생들이 합창보다 자습을 선호하고, 쉬운 노래를 대충 정하는 모습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 분위기를 반영한다.
- ③ 공연 중 '재채기' 영상과 연주의 불일치가 관객에게 즐거움을 준 것은 엇박자의 긍정적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④ 어둠 속에서의 합창은 '음치'라는 편견을 지우고 소리의 조화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장치이다.

7. [정답] ②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면 엇박자 D는 그 사건 이후 음악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영화를 전공하게 되지만, 이후 「소리의 전시회」라는 무성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음치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등 음악(소리)과 관련된 활동을 다시 이어갔다. 또한 현재 시점에

서는 음악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있으므로 '완전히 끊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엇박자 D는 다른 합창단 친구들과 달리 합창단 활동에 열정적이었으며 단장까지 맡았다.
- ③ 중략 부분 줄거리에 대학원에서 음치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 ④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나'에게 찾아와 공연 컨설팅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있다.
- ⑤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엇박자 D의 요청으로 '나'가 오랜만에 합창단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공연에 초대했다는 내용이 있다.

8. [정답] ③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 내용을 보면,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질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엇박자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관객들은 이 '엇박자'를 재미있어했다.

- ①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하자'라는 대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음악 선생은 엇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으나 D가 거부하자 립싱크를 지시했다.
- ④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엇박자 D가 '소리의 전시회'에서 영감을 얻어 음치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앞부분에서 '단순한 멜로디였고, ……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9. [정답] ④

엇박자 D가 준비한 음치들의 합창은 복수가 아니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음치들의 목소리도 아름다운 화음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친구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의도이다.

- ① 음악 선생조차 합창 연습을 빨리 끝내고 자습하라고 독려하는 모습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엿볼 수 있다.
- ② 엇박자 D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상징한다.

③ 무성 영화와 어우러진 엃박자 연주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긍정적으로 수용된다.

⑤ 마지막 장면의 립싱크는 과거의 억압(타의에 의한 립싱크)과는 반대로, 자발적인 존중과 사과 의미를 담고 있다.

10. [정답] ⑤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린 것은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영상과 음악의 엃박자가 주는 묘한 리듬감을 즐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불완전함(엃박자)도 예술적 재미와 가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지, 완벽함을 기대하는 심리의 표출이 아니다.

① 음악 선생의 행위는 <보기>에서 언급한 획일주의와 배제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②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는 서술은 획일성을 벗어난 새로운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③ '나'가 느낀 위태로움은 정해진 틀(음정, 박자)에서 벗어난 존재를 바라보는 평범한 다수의 시선을 대변한다.

④ 음치들의 합창 기획은 소외된 개성(음치)들의 가치를 되살리는 행위이다.

11. [정답] ③

음악 선생은 엃박자 D의 노래가 전체 합창을 망친다고 판단하여 '바이러스' 취급을 하고, 자진 사퇴를 권하거나 입만 병긱거리라는 지시(립싱크)를 내린다. 이는 전체의 조화(획일성)를 위해 개인(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이다.

① 엃박자 D의 개성을 묵살했으므로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조력자로 보기 어렵다.

② 자발적 참여보다는 결과(합창을 망치지 않는 것)를 중시했다.

④ 지문 내에서 음악 선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사과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개성을 존중하기보다는 획일적인 기준(정확한 음정과 박자)을 강요했다.

12. [정답] ④

작품 초반부의 '나'는 엃박자 D를 기이하게 여기거나 그의 별명을 가십거리로 삼는 등 다소 우월하거

나 비판적인 시선을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후반부 공연을 보며 '나'는 엃박자 D의 기획 의도에 공감하고, 음치들의 합창에 감동하며 립싱크로 예의를 표한다. 따라서 서술자가 끝까지 우월한 위치에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에서의 엃박자 D의 모습을 회상하며 서술하고 있다.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한계로 인해 '나'는 엃박자 D의 내면을 직접 알 수 없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통해 파악한다.

③ '나'는 공연을 보며 음치들의 노래가 아름다울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⑤ <보기>의 설명처럼 서술자의 인식 변화(편견에서 존중으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치이다.

13. [정답] ②

이 작품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중심인물인 '엃박자 D'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서술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야기의 주된 초점은 '엃박자 D'라는 인물의 행위와 그가 기획한 공연에 맞춰져 있다.

①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나'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긴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 사건은 '엃박자 D'를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작가 관찰자 시점(또는 객관적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1